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10 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목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신앙을 본받으며 더욱 복된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예비신자 교리 신청 안내**
 * 신청하실 분은 광광주 예로니모 형제님 (614-214-677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당 사무 Volunteer**
 - 교적 및 기타 서류/문서 담당: 이호근 라파엘
 - 본당 홈페이지 관리: 허미선 레이첼
 - 본당 후보 담당: 이원익 미카엘
- ◆ 그동안 총무를 맡아 수고하신 김도형 바울리노 형제님과 주일학교 담당 김선경 요안나 자매님께 감사 드리며, 새로 부임해 가는 일터에서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 큰 뜻을 이루시기 기도합니다.
- ◆ **콜럼버스/신시내티 한인천주교회 친선 골프대회**
 - 일시: 10 월 25 일(토) 10-11 시 (티타임예정)
 - 장소: Turnberry 골프장
 - * 신청 및 문의: 서경환 프란치스코 형제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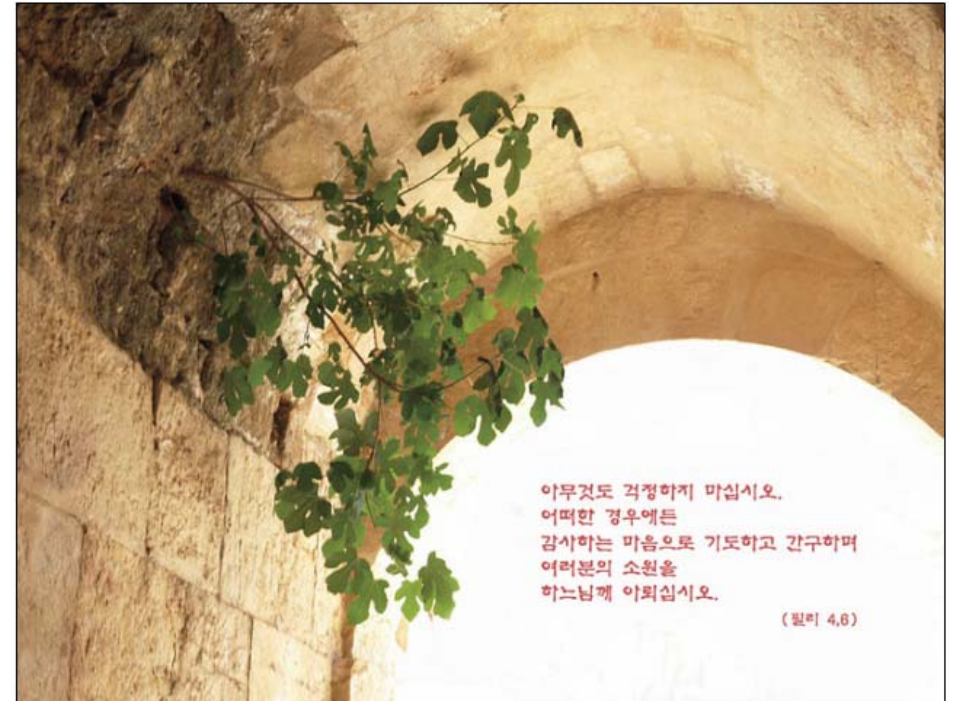
- ◆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성가단장 박영주 마리아 자매님 (614-315-8598)에게 연락바랍니다.
- ◆ **꾸리아 10월 모임**
 - 일시: 10 월 5 일(일) 오후 2 시 45 분
 - 장소: Parish Center Meeting Room
- ◆ **이호영 구역 모임**
 - 일시: 10 월 11 일(토) 오후 6 시
 - 장소: 서태수 바오로 & 제갈 쟈마 교우님덕 259 Hopewell Ct. Powell, OH 43065
- ◆ **10월 천교 후 정리 봉사:** 이호영 구역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 시-1 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OH
-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 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6,020 입니다.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연중 제27주일 October 5, 2008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필리 4,6)

사진: 황인선 바르나바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59.00
교 무 금	\$620.00
BAA	\$100.00
감 사 헌 금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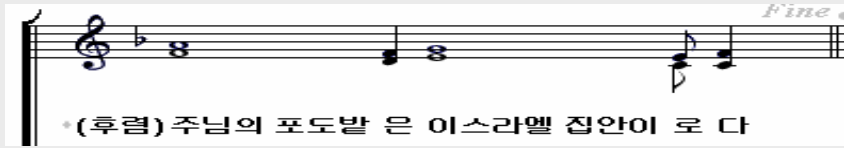
- **교 무 금:** 김정일 임상순 홍그루 인영범 최일성 고상식
- **BAA:** 신재민
- **감사헌금:** 조주현

“주인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야서 5,1-7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다.”

화답송



제 2 독서 필리피서 4,6-9
 “나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1,33-43
 “주인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2,635단 19명
이호영	200단 1명	9,408단 77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6,745단 71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00단 1명	2/22/04-9/28/08 (241주)

☞ 총누계: 199,918단 12,688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0월 5일	10월12일
전례준비	김준식	서인원
해설자	곽광주	고상식
독서/봉헌	황석두 구역	정동완 김제준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402 ♫ 봉헌: 212
 ♫ 성체: 158 181 ♫ 파견: 461

죽음을 부르는 욕심

김영춘 베드로 신부 / 평화방송·평화신문 주간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에는 끔찍한 폭력과 죽음이 이어집니다. 포도밭 임자가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소작인들로부터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소작인들은 소출을 내기는커녕 종들을 붙잡아 매질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합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주겠지” 하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입니다.

비유에서 포도밭을 차지하려는 소작인들의 욕심은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이게 합니다. 욕심이 죽음을 불러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소작인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것도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느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의 욕심이 인류를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합니다.

창세기에 이어 나오는 카인의 이야기도 욕심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자신의 제물은 외면당하고 동생 아벨의 제물이 하느님께 받아들여지자, 카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카인의 시기와 욕심이 죽음을 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카인의 이야기는 인간이 지닌 욕심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의 피가 우리에게도 흐릅니다.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느님을 배반하게 되고, 카인처럼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육마저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유에 나오는 포도밭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목상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의 포도밭에, 곧 나의 삶 안에 들어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 가까운 이웃, 성당의 형제자매, 직장 동료, 그리고 내가 발길을 옮기는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빌리자면, 주인이 포도밭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다름 아닌 하느님이시고, 종들은 하느님께서 나의 삶의 터전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포도밭 소작인들처럼 하느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폭력과 죽음으로 맞아들이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삶의 포도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환대하기보다는 그들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들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칭찬하기보다 헐뜯고, 인정하기보다 시기하고, 자랑으로 삼기보다 무시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내치는 많은 경우는 나 자신만의 포도밭을 차지하려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그리하여 포도밭에 침범하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무장된 욕망의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비유에서처럼 하느님께서 나의 삶의 포도밭에 당신의 종들과 아들을 보내십니다. 소작인들은 포도밭을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포도밭을 찾아온 이들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삶을 나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채우려 하면, 나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이들을 해치게 됩니다. 내 인생의 터전에 찾아오는 이들을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배척하면 나의 삶이 처참해지지만, 하느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환대하여 맞아들이면 나의 삶이 구원으로 이끌어집니다.